

상판 해체...칠산대교 사고 원인 규명 속도

끊어진 강봉 16일 회수...조사위 다음달 8일 결과 발표

안전관리·작업 문제 없어 시공·설계 부실 가능성 조사

시소처럼 주저앉은 영광 칠산대교 해체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6명의 부상자를 낸 사고 원인을 규명할 핵심요소로 지목된 끊어진 강봉이 이르면 16일 회수될 것으로 보여 원인 규명과 함께 사법처리 대상자도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다.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따르면 광주지방노동청의 작업중지 해제 및 해체작업 진행 승인 결정에 따라 지난달 18일부터 진행된 칠산대교 상판 해체 작업은 늦어도 이달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해체작업 완료에 앞서 상판과 교각을 연결·고정하는 강봉(쇠기둥)은 오는 16일 철거돼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칠산대교 사고조사위원회로 넘겨진다. 지난달 8일 사고가 난 교각에는 교각과 상판을 연결

하며 힘을 보태는 길이 9m, 직경 4cm의 강봉 32개가 박혀있었는데, 공사 중이던 다리가 주저앉으면서 모두 끊어졌다.

사고조사위는 회수한 강봉을 정밀 조사해 강봉이 상판 하중을 견디지 못해 끊어진 것인지, 상판 작업 중 상판 균형이 맞지 않아 상판이 기울면서 강봉이 끊어진 것인지를 밝힐 계획이다. 애초 설계가 부정확했는지, 아니면 설계대로 강봉 설치와 콘크리트 타설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부실시공에 따른 '인제'인지를 가려내려는 것이다.

사고조사위는 강봉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논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8일 사고 원인을 발표하고 이에 앞서 경찰에 사고 원인이 담긴 결과물을 건네기로 했다.

인명피해 책임을 물으려고 시공사, 설계회사, 감리회사, 작업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경찰은 현재까지 사고 당시 안전관리나 작업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설계 및 시공에 부실이 개입돼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사고 직후 교량시공 전문가들 사이에서 "설계가 정상이고 설계에 따라 시공됐다면 사고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부실시공 가능성이 불거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부 사고 조사위 결과를 참조해 사법처리 수위와 대상자가 가려질 예정"이라며 "수사와 별개로 부실시공 혐의 등이 드러날 경우 행정기관 차원으로 업체에 대한 처분이 뒤따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달 8일 오전 10시 57분 영광군 영산면 칠산대교 공사현장에서 교량 상판 콘크리트 타설 공사 중 상판 일부가 기울어

져 주저앉으면서 근로자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공사는 중단됐고 이후 광주지방노동청의 승인을 받아 해체 작업에 나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날 현재 기울어진 상판 102m 가운데 영광 방향으로 치솟은 상판 38m를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박힌 와이어를 이용해 잘라내는 방식으로 해체했다. 치솟은 상판 철거가 이달 20일께 완료되면 바다로 주저앉은 나머지 53m는 대형 파쇄기를 통해 이달 안으로 해체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총사업비 1467억원 규모의 영광-해제도로공사(총 길이 9.52km) 구간 중 하나인 칠산대교(길이 1.82km)는 지난 2012년 9월 착공, 오는 2019년 8월 준공예정이다. 발주처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시공은 ㈜대우건설, 대보건설㈜, 남양건설㈜ 등 6개 회사 컨소시엄이 맡고 있다.

/영광=박형진기자 qkrhj@kwangju.co.kr

전남 짓다 만 건물 17곳...광주월드컵경기장 면적보다 커

우범지대 전략 가능성

도, 국토부 정비지원 공모 참여

공사를 시작하고도 준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장기 방치된 건물이 전남지역에 17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면적으로 10만㎡에 달하는 수준인데, 광주월드컵경기장(연면적 7만1630㎡)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건물이 오랜 기간 미준공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이날 현재 전남지역에서 공사를 시작한 지 2년 이상 미준공 상태인 건물은 모두 17곳(연면적 9만9301㎡)에 달했다.

이들 건물은 주로 착공신고를 한 뒤 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물주와 시공사간 채무관계 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장기 방치된 건물들이다.

작공한 지 2년 미만이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물까지 합하면 장기 방치된 미준공 건물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군별로는 순천·나주·고흥·장흥·영암·진도가 2개씩, 여수·곡성·무안·함평·장성이 1개씩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이 5개(5만387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숙박시설(3개, 9540㎡) ▲의료시설(2개, 1만6598㎡)·공장 및 창고시설(2개, 5524㎡)·근린생활시설(2개, 2434㎡) ▲종교시설(1개, 1817㎡)·교육연구 및 복지시설(1개, 9478㎡)·주택(1개, 40㎡) 등이다.

이 같이 착공 후 미준공 건물이 많은 이



어르신들, 광주·전남 태극 전사 응원

광주시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이용 어르신들이 9일 오전 타운 광장에서 사물놀이와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리우올림픽에 참가한 한국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고 있다. 광주복지재단이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불발드워속에서도 5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해 기보배 선수 등 광주를 대표해 출전한 선수들을 응원했으며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기도 했다. /최현배기자 choi@

유는 최근 부동산 수요가 위축되면서 각종 개발사업들이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장기 방치된 건물의 경우 각종 생활쓰레기 투기로 인한 악취와 노후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 범죄 및 화재 발생 우려 등 안전사각지대로 전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처음으로 공사중단 방지건축물 선도사업을 진행했는데, 전남도는 공모사업에 참여해 선도사업 지구(순천1곳)로 선정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장기방치된 건축물

대부분이 채무관계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지난해 선정된 순천지역 장기방치 건축물도 개발하려고 했으나 건축주가 매물을 경매에 넘기면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면서도 "올해는 관련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조속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희기자jz@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8 해질 12:29
해짐 19:27 달짐 23:41



◇지역별 날씨 (℃)	
광주	25/35
목포	26/33
여수	26/32
나주	24/35
완도	25/33
구례	23/35
강진	24/34
해남	24/34
장성	24/34
보성	23/33
순천	25/35
영광	24/34
진도	25/33
전주	26/34
군산	25/33
남원	24/34
홍산도	24/30

◇바다 날씨		◇생활지수	
지역	파고(m)	지수	상태
서해	0.5	식중독	경고
남부	0.5~1.5	지진	경고
남해	0.5~1.0	미세먼지	보통
서부	1.0~2.5		
면바다(동)	1.0~2.5		
면바다(서)	1.0~2.5		

폭염 속 식중독 주의보

'손 씻기·음식물 익혀 먹기·물 끓여 마시기' 3원칙 지켜야

폭염으로 병원성 대장균 검출률이 부쩍 높아지면서 식중독 지수가 경고 수준까지 높아졌다.

9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역 협력병원과 지난 1~7월 설사 증상을 보인 환자 1807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371건에서 원인 병원체가 검출됐다.

1월에는 노로바이러스 등 바이러스성 병원체 검출률이 가장 높았지만 때 이른 무더위가 시작된 5월부터 세균성 병원체 검출률이 증가해 7월에는 32.6%를 기록했다.

검출된 주요 병원체는 병원성 대장균(28.6%), 살모넬라군(27%), 황색포도상구균(22.2%), 캄필로박터군(19.0%), 클로스트리듬군(3.2%) 등이었다.

병원성 대장균은 지난 6월 16.7%에서 한 달 만에 11.9% 포인트가 증가했다.

연구원은 식중독 발생 가능성을 예보하는 식중독 지수가 이날 현재 경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식중독 지수는 관심(35 미만), 주의(35~70 미만), 경고(70~95 미만), 위험(95 이상) 등 4단계로 나뉜다.

세계원 연구원 미생물과장은 "고온현상이 지속되면서 추석까지는 식중독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음식점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칼, 도마, 식기류 위생관리와 손 씻기, 음식물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 등 식중독 예방 3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달 만에 11.9% 포인트가 증가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상가 문 열고 영업하면 과태료 300만원

'이상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11일부터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공고했다며 26일까지 단속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업소가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 조치를 받게 된다. 이후 1회(50만원), 2회(100만원), 3회(200만원), 4회 이상(300만원) 등 여러 차례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올라가게 된다. /연합뉴스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중-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

국가가 인정하고 지원하는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전남지역 어디든 무료출장

"불만족 100% 환불"

"울리지 않고 잡음 없이 깨끗한 소리 착한 보청기"

출장문의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